KBS 월화드라마 라인업 살릴까?

박보검·김유정 주연 '청춘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BS 새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왼쪽부터 채수빈, 박보검, 김유정, 진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보검과 김유정, 두 청춘스타를 내세운 '청춘사극'은 죽어가는 KBS 월화드라마 라인업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2TV 새 월화미니시리즈 '구르미 그린 달빛'(극본 김민정·임예진, 연출 김성윤·백상훈)은 박보검과 김유정을 필두로 하는 출연진만으로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다. '무림학교' '뷰티풀마인드' 등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KBS의 월화드라마 라인업을 살릴 구원투수다.

내용은 새롭지 않다. 허술하고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있는 왕세자 '이영'(박보검)과 남장을 하고 내시가 된 '홍라온'의 천방지축 로맨스다. 아역티를 벗은 김유정이 '홍라온'으로 윤은혜(커피프린스 1호점)나 박민영(성균관스캔들), 박신혜(미남이시네요) 등 톱 여배우라면 으레 거치는 남장여자 코스에 합류했다.

"많은 드라마에서 사용된 콘셉트잖아요. 선배님들의 연기를 다 찾아봤어요. 그 중 '커피프린스1호점'의 남자들만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설정이 '구르미 그린 달빛'과 비슷해서 많이 참고했고요. '라온'이는 누가 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여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김유정)

사극의 흔한 꽃선비 '김윤성'으로는 그룹 'B1A4'의 진영, 도도한 세자빈 '조하연'에는 신예 채수빈이 합류해 각자의 사랑을 전개한다.

"지상파에서 첫 주연인데요, 부담되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김윤성'이라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실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진영)

한 주 차이로 출발하는 경쟁작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와의 비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규태 감독과 같이 경쟁하게 된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이어서 발랄하고 아기자기하고, 경쾌한 에피소드가 버무려진 젊은 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김성윤PD)

18일 방송에 앞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10여 분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로맨틱 코미디 '커피프린스 1호점'과 '용의 눈물'류의 정통 사극을 수없이 오갔다.

극의 분위기는 널을 뛰었지만 '청춘사극'을 표방한 만큼 출연진의 상큼한 외모와 고운 화면 때깔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1988'이 낳은 스타다. 차기작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 사이에서 KBS 2TV 새 월화미니시리즈 '구르미 그린 달빛'을 선택했다.

"많은 관심과 기대에 감사드립니다. 캐스팅됐다는 소식에도 많은 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전부터 사극을 해 보고 싶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대본을 읽으면서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영'이라는 친구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보검이 맡은 '이영'은 어린 나이에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덜렁함과 뺀질함으로 감추고 사는 조선의 왕세자다. 박보검은 "천방지축 날라리 왕세자"라는 말로 '이영'을 설명했다. 전작 '응답하라1988'에서 맡았던 진중한 바둑기사 '최택'과는 정반대의 캐릭터다.

이른바 '응답의 저주'는 박보검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구다. '응답하라1988'로 스타가 된 배우가 차기작으로 그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는 말이다. 박보검은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말이 속상해요. '응답하라1988'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작품에 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하고요. '구르미 그린 달빛'도 소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박보검의 자태는 일단 그 자체로 시청률 견인차다.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추는 김유정까지 "너무 잘생겨서 보다가 멍하니 있을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 '구르미 그린 달빛'은 22일 첫 방송 된다.

/뉴시스

소녀 다섯 명의 꿈이 현실로

프로젝트 그룹 '아이비아이' 첫 싱글 '몰래몰래' 발표

프로젝트 그룹 '아이비아이'는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최종 11인에 들지 못해 좌절한 김소희(21), 윤채경(20), 한혜리(19), 이수현(20), 이해인(22)이 모였다.

소녀 다섯 명의 꿈이 모여 현실이 됐다.

프로젝트 그룹 '아이비아이(I.B.I)'는 이른바 '탈락자'들의 팀이다. 걸 그룹을 뽑는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최종 11인에 들지 못해 좌절한 김소희(21), 윤채경(20), 한혜리(19), 이수현(20), 이해인(22)이 모였다.

이 다섯 명의 데뷔를 어쩌면 이들보다 더 바랐을 팬들이 데뷔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반인'의 이니셜을 따 장난처럼 팀 이름을 지었고, 멤버를 꾸렸다.

그리고 일단은 프로젝트성이지만 18일 첫 싱글 '몰래몰래'로 진짜 가수가 됐다. '일반인'을 의미했던 'I.B.I'는 이제 '아이 빌리브 잇(I Believe It)'이라는 멋진 뜻을 가졌다.

이날 서울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다섯 멤버는 긴장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꿈에 그리던 무대다. 이수현은 벅찬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타이틀 곡 '몰래몰래'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는 가사로 희망을 전하는 노래다. '아무도 몰래몰래'라는 후렴구와 리드미컬한 비트, 그루브한 신시와 베이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 외에도 팀명과 제목이 같은 'I.B.I'가 실렸다. 아쉽게 탈락해 데뷔가 좌절된 상황에도 꿈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리는 간절함과 열정을 가사로 벅찬 감정과 설레는 마음을 EDM에 담은 노래다.

데뷔라는 꿈을 이뤘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음원 차트 1위다. 쟁쟁한 선배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 행복이다.

/김민근기자

김종덕 장관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열린음악회 참석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오후 7시 30분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리우하계올림픽에서 선전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국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열린음악회의 부제도 '새로운 여정, 2018 평창의 꿈'이다.

무대는 여성그룹 '트와이스' '마마무', 남성그룹 '틴탑' '엔시티(NCT)127', 송소희, 에일리, 샘김, 김장훈 밴드 등이 꾸몄다.

김종덕 장관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류 평화의 대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녹화분은 오는 28일 오후 6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김민근기자

손흥민,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개막전 출전

손흥민(24·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 개막전에 출전 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마우리치오 포체티노 감독은 19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를 통해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탈락한 손흥민이 슬픈 얼굴로 돌아왔다"며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체티노 감독은 "일단 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훈련을 지켜본 후에 출전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개막전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리우올림픽 4강 진출 좌절 후 곧바로 영국으로 이동해 팀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후 11시 토트넘 홈구장인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 개막경기를 치른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지난해 9월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골을 넣은 좋은 기억이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흥민이 출전한다면 이청용(28·크리스탈 팰리스)과 맞대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청용은 지난 13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WBA)과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65분을 소화했다. 이청용 역시 연속 출전 가능성이 높다.

/김민근기자

프로배구 GS칼텍스 한마음 워크숍 실시

프로배구 GS칼텍스가 19일부터 1박2일 동안 경기도 청평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는 이미지 업, 단합, 재충전이다.

GS칼텍스는 2회에 걸쳐 이미지 컨설팅 관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프로선수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선수 개인별 이미지 컨설팅, 올바른 인터뷰 요령 등이다.

또 선수단의 단합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재충전을 위해 수상레포츠, 다양한 여가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주장 정지윤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스케줄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강의를 통해 자신감은 물론이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2016년 청주 컵대회와 올 시즌 우승을 위해 마음을 다 잡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